2023년 9월 17일(주일) 제1648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2023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

9월 22일(금)-23일(토)

교회는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 축제"를 9.22(금)-9.23(토)에 개최합니다.

이번 바자 방법 중 새로이 시도되는 희망판매 장터, 사랑의 온도계 참여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 서울교회 바자는 작년과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바자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바자에 많이 참여하여 바자가 열리는 동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지인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웃의 등대되고 나침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08회 총회

9월 19일(화)-21(목) 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9월 19일(화)부터 21(목)까지 3일간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 우리 교회는 손달익 위임목사와 이계홍 장로가 총대로 참석합니다.

바자 주간
새벽기도회 및 수요예배 장소
일시 변경

9월 18일(월)-23일(토) 본당에서

사랑의 바자가 열리는 주간인 9월 18일(월)-23일(토) 동안 바자위원회에서 1층 웨민홀을 사용하는 관계로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는 본당에서 모입니다.

2023 사명자대회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10.8(주)-11.26(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11.20(월)-11.25(토) 새벽 5:00-6:00

당회는 지난 9월 10일(주일) 9월 임시당회로 모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 사명자대회

서울교회 설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를 세우면서 7주간의 특별기도로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계속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사명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성경읽기와 기도운동을 펼치는 2023 사명자대회를 갖습니다.

- 주제: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 기간 : 10.8(주)-11.26(주) 50일간
- 특별새벽기도회 : 11.20(월)-11.25(토) 새벽 5:00-6:00
- 주제성구:"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 주제찬송 :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 섬기시는 분들
  - 대회장 : 손달익 위임목사
  - 지도 교역자 : 장석남 목사
  - 본부장 : 노제현 장로
  - 차장 : 지성철 안수집사
  - 기획분과 : 김영희 안수집사
  - 진행분과 : 윤요섭 안수집사
  - 기도분과 : 채교천 안수집사
  - 교육분과 : 옥종호 안수집사
  - 홍보분과 : 김금재 안수집사
  - 재정분과 : 정윤희 권사
  - 안내분과 : 김영선 안수집사
  - 동원분과 : 김은석 안수집사
  - 봉사분과 : 박미정 권사
  - 차량분과 : 임우택 안수집사

2. 찬양대 지휘자 순환보직, 연임 실시

2024년 1월부터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 1부를 2부로, 2부를 3부로, 3부를 1부로, 순환을 실시하고,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은빛, 갈렙찬양대 지휘자는 연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1991년 11월 24일 창간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copyrights © seoulchurch, all right reserved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tel :(02)558-1106 fax : (02)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한 사람의 회개

(욘 1:1-6)

손달익 위임목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민족, 국적, 성별, 직업, 계층 등을 초월하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44).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정신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결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피하는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는가?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하고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까? 요나가 살던 때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의 시대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등과 같은 시대였고 BC 800년을 전후한 시대였습니다.(왕하 14장) 이 시기의 영토 확장 정책은 필연적으로 북쪽의 강대국 앗수르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의 꿈을 접어야 할 만큼 두 국가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때였습니다. 앗수르의 우상숭배, 폭력적 사회, 전쟁포로들에 대한 정책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2절)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니느웨를 싫어하는 요나의 생각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우상숭배가 극심했고, 이스라엘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했고, 전쟁에서 포로 된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을 뽑고 아킬레스근을 끊은 다음 짐승처럼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혐오스러운 니느웨를 향해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끔은 우리도 요나처럼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2. 왜 그는 풍랑을 만나야 하는가?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장의 호통을 듣고 요나가 일어나 하나님께 풍랑을 멈추어 주시도록 기도했지만 풍랑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 이 원인이 요나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8-10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선지자가 당하는 수모를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측량 못할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왜 잠만 자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자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며 한심해 했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추락이 그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때문입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아모스서에는 동시대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탄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부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앗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 저주의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으며 선지자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요나가 땅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저주하고 혐오하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으며
선지자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3.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이 모든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에 있던 사람들은 냉큼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13절) 그들은 이 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 모두가 저주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배에 탔지만, 요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들은 오히려 요나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힘겨운 사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종결지은 것은 한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회개가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 한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이토록 집요하게 요구하셨습니까? 니느웨를 전도하는 일에 요나가 꼭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셨지만,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시는 것은 먼저 요나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등지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까지 따라가셔서 기어이 그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세우시어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의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나를 추적하시고 따라 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7-10)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자랑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자로 인생 마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자가 되길...

김광태 장로
(2023 바자위원장)

지난 7월 9일 주일에 바자를 위한 회의를 처음 시작한 이후, 바자위원들이 매주 주일에 모여 준비한 "2023 사랑의 바자"가 다음주 금(22)-토(23) 2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동안 폐를 끼쳤던 지역 이웃에게 예전의 은혜로운 서울교회로의 회복을 알리고 진정성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바자를 실시코자 매주 모여 논의하였습니다.

바자를 통하여 예배당의 빈자리가 이웃들로부터 채워지고 바자수익금은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을 우선시 하였고, 한동안 중단되었던 사랑의 온도계를 시작으로 희망판매장터, 온라인 판매를 새롭게 도입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바자를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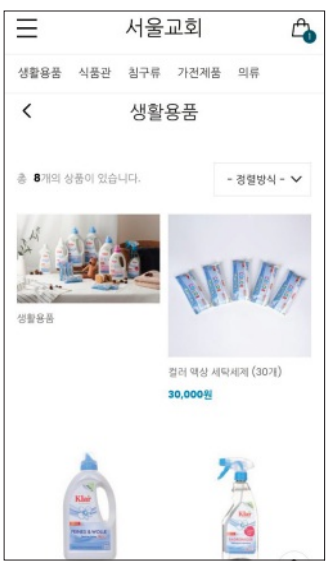
바자본부에서 계획한 바자는 단지 준비된 물품을 팔고 사는 그런 바자가 아닌 모든 교구, 교인이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 희망과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이 넘치는 바자입니다.

이에 따라 전 교구의 바자 참여 신청이 있었고 다음 주에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이미 사랑의 온도계와 희망판매장터에서 과분한 성도님들의 참여와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바자에도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바자의 목적대로 전 교인의 참여를 통한 서울교회의 참 회복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바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준비된 물품:샤인머스킷, 사과, 배, 햇밤, 오분도쌀, 된장 각종액젓, 참·들기름, 건어물, 양말 등 잡화, 이불, 여성의류, 황토속옷, 명품(식기, 가방), 애견간식, 독일세탁세제(KLAR) 외 먹거리(떡복이, 순대, 닭강정, 꽈배기) 음료(커피, 과일쥬스) 등 다수 준비.

- 바자 온라인 이용방법 -

1) 바자 온라인 링크 : https://yujung0429.cafe24.com/
2)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3) 회원가입 후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클릭
4) 물품의 이미지를 클릭
5) 이미지 아래에 상품 문의를 클릭
6) WRITE를 클릭하고 글 작성
   - 예를 들어 "배 한 박스 구매하겠습니다" 작성하고 등록.
7) 온라인으로 구매 신청을 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결제 후 8층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유라시아권역 선교대회

부활절 예배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 61:4)

할렐루야!

존경하는 손달익 위임목사님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성령충만 및 신앙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확장과 부흥에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상황은 거의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가지 안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개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팬데믹 후 조금씩 회복되어가던 선교사역도 다시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서방 진영과 함께 비우호국가에 지정되어 있어, 한국인들도 언제 어느 때 미국 선교사들처럼 추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러 관계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역은 먼저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기존의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간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으며, 특히 고려인 젊은이들과 장년들은 일자리 때문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갈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갔고 지금도 가기를 원하고 있어 더 어려움이 많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부활주일에는 협력 교회인 쁘리미레니예(화목)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을 서로서로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월 27일(토)에는 한글학교 2022-2023학기를 마치며 시립도서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불러서 간단한 식사와 다과회를 하며 전도활동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 한국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 받아들여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6일(화)-6월 9일(금)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유라시아 정세와 선교'란 주제로 제2회 유라시아권역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 등 유라시아권역 총회 파송선교사들이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토론으로 서로 교제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강림 후 성령충만하여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란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항상 성령충만하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2. 노브고로드 장로교회의 부흥과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3. 예배와 말씀공부를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으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4. 성경읽기 모임, 일대일 제자훈련, 캘리그라피 성경쓰기 모임, 마더와이즈 모임 등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5. 교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도록
6. 한글학교를 통한 전도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복음도 받아들이도록
7. 김영호·서향정 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러시아에서
김영호·서향정 선교사 드림

한글학교 수업

어린이 축복기도

연합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기독교 농촌운동

최용신

최용신이 세운 안산 '샘골강습소'

신흥우

배민수 목사

에밀 브루너(Emil Brunner)

양주삼 목사

마펫(Samuel A. Moffett)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군산항에 적재된 수탈된 조선 쌀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1920-30년대 농촌계몽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채영신은 가난한 동네 청석골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애를 쓰다 그만 병을 얻어 짧은 생을 마감한다. 심훈은 이 채영신의 캐릭터를 기독교여성연합회가 파견한 운동가로, 활동 거점을 마을교회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실을 반영한 설정이었다. 채영신의 모델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가 파견한 농촌운동가 최용신이다.

기독교가 농촌운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회주의의 확산이었다. 1924-1925년 사이 「기독신보」에는 농촌의 경제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사회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종종 실렸다. 한국교계에서 가장 먼저 농촌운동을 시작한 것은 YMCA였는데 YMCA의 총무 신흥우와 학생부 간사 이대위는 사회주의의 반기독교 운동의 영향력을 염려하며 교회의 반성을 촉구했고 교회가 선도적으로 농촌운동에 앞장서야 사회주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MCA는 1923년부터 농촌운동을 준비하다가 1925년 착수했으며 장로회와 감리회, 그리고 YWCA의 농촌운동은 1928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1926년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교수 브룬너(E. S. Brunner)를 초빙해 한국과 만주, 시베리아를 돌아보고 한국 농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이 보고서는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에 제출되었다. 한국교회는 6명의 대표를 뽑아 예루살렘에 파견했다. 신흥우(YMCA), 정인과(장로회), 양주삼(감리회), 김활란(YWCA)의 한국인 4명과 노블(William A. Noble), 마펫(Samuel A. Moffett) 등 선교사 2명이 그 대표였다. 예루살렘 대회는 농촌운동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었고 한국 대표들은 농촌과 농민이 중요한 선교의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한국 대표들은 예루살렘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농축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를 시찰하고 한국 농촌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다. '정말(덴마크를 의미)과 정말농민'(홍병선), '정말나라연구'(채핀 부인, 최봉직), '정말인의 경제부흥론'(김활란), '정말국민고등학교'(박인덕), '농민의 낙원인 정말'(양주삼)과 같은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덴마크가 농업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리며 한국 농촌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농촌운동은 소작쟁의 같은 사회주의의 투쟁적 방법과 근본적으로 노선을 달리 했다. 온건하고 합법적으로 농촌을 계몽하며 농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었다. 먼저 교육기관과 협동조합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야학, 농법을 개량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전문학교,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강습소 등이 설치되었다. 기독교인이 주축이 된 농촌단체가 속속 생겨났고 여러 개의 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장로회의 경우 1930년부터 신용조합을 시작했다. 조합의 운영은 총회가 직접 했고, 각 노회가 지부를 두고 회원을 모집했다.

장로회의 농촌운동은 1935년 배민수 목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농촌부 총무를 맡으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배민수는 농촌운동과 신앙운동을 하나로 묶어 예수촌 운동을 전개했다. 농촌운동을 더욱 신앙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이상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로회 내부에서 농촌운동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아닌 농촌운동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여기에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한국을 일본의 군수기지로 전환하면서 국내 민족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일으킨 농우회 사건(1938년)은 장로회의 농촌운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유재기, 박학전 같이 배민수를 돕던 장로회의 농촌운동가들이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고 배민수는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기독교 농촌운동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말았다.

기독교의 농촌운동은 계몽운동으로서 농민교육, 농사개량 등에 기여하였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농민인 한국의 현실에서 기독교 농촌운동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기적절한 선교사업이었다.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시기가 겹치면서 일제의 수탈에 본의 아니게 악용된 점과 일제의 탄압과 훼방으로 실제 농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점이 있으나 그 시기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사역을 이루어 나간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로 평가된다.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의 역사적 선교 소명 앞에 서야 한다. 한국교회의 과거 농촌운동은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교회의 응답이었다.

결혼

- 9교구 김치삼 집사·곽미숙 집사 장남 김영호 결혼
9월 23일(토) 오후 1시
벨리웨딩하우스(가평)

식사 제공

- 9교구 심상필 권사 (한마음축제 대상 감사드리며)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1시-2시)	수요일	전도회 (1시-2시)	토요일	선교회 (1시-2시)
				9/2	빌립 안드레 베드로
9/3	자원자	9/6	도르가 루디아 뵈뵈	9/9	바울 엘리야
9/10	자원자 마리아	9/13	한나	9/16	모세
9/17	자원자	9/20	에스더	9/23	바자
9/24	자원자	9/27	리브가	추석 연휴	

2023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 성경대학**

강 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 소
에스라·느헤미야	화, 오전 10:30-12:00	9.5-10.31(8주)	최종국 전도사	602호
신약의 파노라마	금, 오전 10:30-12:00	9.8-11.3(8주)	장석남 목사	603호

*** 열린 프로그램**

강 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 소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9.10-11.12(10주)	강남희 전도사	706호
샬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9.7-11.9(10주)	박미라 전도사	101호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9월18일	월	암 1–9	
9월19일	화	옵, 욘 1–4	
9월20일	수	미 1–7	
9월21일	목	나 1–3, 합 1–3	
9월22일	금	습 1–3, 학 1–2	
9월23일	토	슥 1–4	
9월24일	주일	슥 5–9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9월18일	월	욥 36–42	
9월19일	화	시 1–13	
9월20일	수	시 14–22	
9월21일	목	시 23–35	
9월22일	금	시 36–44	
9월23일	토	시 45–55	
9월24일	주일	시 56–68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사랑의 빚을 갚는 예수 제자 되게 하소서.

2. 22(금)-23(토) 2023 실천하는 이웃사랑, 교회사랑 바자 축제를 통해 사랑과 은혜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소서.

3. 전세계 곳곳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재난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향한 전진이 있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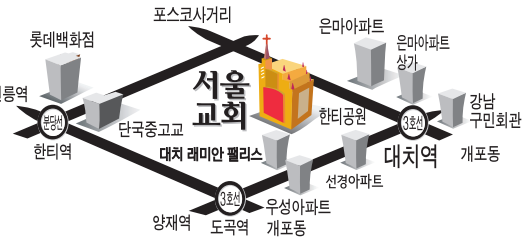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2부 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본당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어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